

2002년도 방진회 정기총회 열려

우수 방산업체, 우수 논문 선발 시상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2002년 정기총회가 2월 22일 국방회관에서 각 회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심이택 방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고도화 되고 있는 군의 무기체계를 충족시킬 능력을 구비하느냐 현재 수준에 머무르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방산업체들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수출시장개척, 경영합리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되고,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호 국방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자금의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의 밑거름에 방산업체 관계자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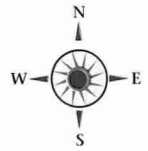
과 노고가 숨어있다”고 강조하고, “부단히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며, 경영혁신을 통한 방위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방산분야 유공업체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었다.

연구개발분야에서 (주)이티아이는 레이더, 유도탄, 잠수함, 통신체계 등에 소요되는 UPS, 주파수변환기, 정류기, 충전기, 주(보조) 전원 공급 등을 연구개발/국산화하여 군 전력 증

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LG 이노텍은 첨단 무기체계 국내개발 및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외화 절감 및 군내 정비능력 확보에 기여하는 등 군 전력증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였다.

방산경영 분야에서는 삼양화학이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력, 원가절감 등의 노력으로 '97년부터 현재까지 흑자전환하여 2개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A”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민수분야 확대, 해외영업의 활성화로 괄목할 성장을 하였고, 방산물자를 차질없이 조달하여 군전력 증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또한 한화는 박격포탄, 수류탄, 로켓탄, 신관, 항공기투하탄, 항공기용 부품, 미사일 생산에 이르기까지 무기체계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갖춘 종합탄약업체로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지



속적인 경영혁신 활동 등으로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였다.

방산수출 분야에서 삼성 테크윈이 터키 자주포사업의 한국측 주계약업체로서, 330만 달러(37억)의 시제계약 및 6,500만 달러(845억)의 초도양산계약을 체결, 2001년 12월까지 6문을 선적함으로써 방산사상 최대규모인 약 1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방산물자 수출과 최초의 국내방산 기술의 해외수출 길을 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터어키 양국의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방산관련 우수노문을 시상하였는데 최우작은 이창원 해군 대위의 「방산물자 원가계산체계 개선방안 연구」, 우수작으로 정병윤 육군 중령의 「정부 관리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기술관리(업무절차 정립 및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박정현 해군 소령의 「절충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03~'07 국방중기계획 발표

정보화·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 기반 구축을 목표로

국방 부는 "21세기 「선진 정예국방」을 지향한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건설의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03~'0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계획은 대상 기간중 국방재원은 국가경제 전망과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소요 등을 고려하여, 최근 국방비 증가율 수준인 6.3%를 적용, 총 98조 6,464억원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 자원 배분 현황

구 분	'03~'07계획 자원	배분율('02→'07)
국 방 비	98조 6,464억원	100%
-전력투자비	36조 3,155억원	33.5 → 39.5%
-경상운영비	62조 3,309억원	66.5 → 60.5%

■ 전력투자비 분야

'03~'07 기간중 전력투자분야는 "현존 및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 첨단 정보 기술군 육성 기반구축"을 목표로, 현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 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은 핵심전력 위주로 발전시키며, 차세대 첨단전력 국내개발 능력 확대 등

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02년 현재 국방비의 4.7%수준인 연구개발비를 '07년까지 6.7%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5년까지는 국방비의 10% 수준이 되도록 확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신규 전력투자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C⁴I / 전자전 전력 분야

조기경보통제기, 함정용 전자전체계, 전자광학영상장비, MCRC 노후교체, 신호정보수집장비 등

*기동 및 타격 전력 분야

11기계화보병사단 개편, 탄약운반장갑차, 테이프형 폭약 등

*해상 및 상륙 전력 분야

차기고속정, 공대함하푼, 신형비치메트 등

*공중 및 방공 전력 분야

T-50 양산, 휴대용 대공유도탄, F-5E/F 수명연장, 남부전투비행사령부 등

*연구개발 분야

다목적 헬기 개발, 군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 군사정보융합체계, 차기고속정 전투체계, 저항기뢰 등을 각각 반영하였다.

■ 경상운영비 분야

'03~'07 기간중 경상운영분야는 “미래의 선진 정보·과학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低비용·高효율의 국방운영체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우수 인재 육성,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 국방 정보화 및 과학화, 국민편익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여건 개선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기술요원 양성, CBT교육 확대 및 각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군 교육기관 시설 현대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장병 사기복지 대책

군 복무의 특수성에 상응한 사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과 가족별거수당 신설, 핵심 전투인력수당 현실화, 군 숙소 및 병영기본시설 개선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다.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

행정용 PC, 국방정보망 보호체계, 메가센터 구축 등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04년부터 인제·홍천 과학화 훈련장에서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대대급 쌍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현존 전투력 운영유지분야

교육용 탄약, 장비운영 연료 등의 필수 소요를 반영하

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 권익보호 관련사업

오·폐수 처리시설, 소음방지 시설 등 환경 보전시설을 '05년까지 완료하고,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불발탄 처리장 부지매입, 사격장 주변 민가 이전 등 민간부문의 숙원사업도 대상기간중에 완료하도록 계획하였다.

■ '07년도 우리 군의 모습

목표년도인 2007년에 달성 가능한 우리의 국방력 수준은 광범위한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 가능한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구축, 중심 전투 및 입체기동작전 수행능력 보강, 연 근해 및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방위권내 항공작전 및 중 고고도 방공작전 능력 등을 구비함으로써, 미래의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精銳 强軍으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올러, 전문인력양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국방정보화 기반체계구축, 과학화훈련 실시 등을 통해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 운영체제가 확립되고, 환경보전시설과 군 사유지 재산 정리 등 국민 편익증진 사업을 완료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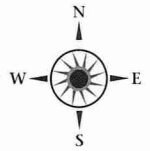
획득실장 주재 간담회 개최

기동/함정분야 20개 방산업체 참석

국방 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2월 20일 국방회관에서 최동진 획득실장 주재로 기동/함정분야 20개 방산업체 대표와 국방부 관계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현장의 소리 청취 및 방산 현안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정책설명에서 국방부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연구개발관실의 업무소개, 방산 착·중도금 지급 규정 개정 추진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획득실장과 방산업체 대표간의 자유토론에서는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

게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업체 건의사항으로는 대우조선의 KDX-II 방산물자지정 및 KSS-II 업체지정, 기본 설계업체의 시제함 업체 선정 관련 건의, 삼성터빈의 해양공기부양정 개스터빈 엔진 방산물자지정 건의, 기아자동차의 비무기체계 개발차량 표준화 품목 지정 절차 생략 등이 제기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주관 방산간담회 활성화 계획(연 2회 → 연 6회)에 따라 작년 12월초 화력/탄약분야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 것으로, 향후 이를 통해 방산업체와 정부간 협력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국방정책토론회 열려

「방위산업 전문·계열화 제도의 개선방안」 주제로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정대철 의원 주관으로 「방위산업 전문·계열화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방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방산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내 방위산업 및 방산기술기반의 발전과 방산업체의 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대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안보상황을 고려해 불태 대북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독자 방위능력 확보가 시급하며, 하이테크 군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동안 방산육성에 많이 기여해온 전문·계열화 제도가 정보기술로 대변되는 현재의 세계 경제시장의 환경변화, 첨단기술의 발전속도, 시장 경제 원칙 등을 감안할 때 개선의 필

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태환 경상대 교수의 사회로 김형욱 홍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배제대 김광열 교수, 산업연구원 안영수 박사, 과학기술정책원 조항희 박사, 항공우주연구원 최연석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